

10개 키워드로 본 '검은 호랑이해'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 2022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지음



2021년도 이제 2개월여 남았다.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 해다. 명실상부한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2022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했다. 김난도 교수를 비롯해 모두 10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10개의 키워드 두운을 'TIGER OR CAT'로 잡았다. 팬데믹 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호랑이가 될 수도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Transition into a 'Nano Society' (나노사회)=파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는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나노사회의 메가트렌드 아래 선거의 해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분열의 길이나 연대의 길이나를 가늠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Incoming! Money Rush (머니러시)=미국 서부에 골드러시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머니러시 현상이 있다. 투자와 투잡에 나서며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연결하는데 관심을 쏟는 이들이 많다. 성장과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Gotcha Power' (득템력)=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돈은 기본이고 시간, 인맥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득템력'이라 한다. 상품 과잉의 시대 현대판 구



성장과 자기실현을 위해 돈벌이에 나서서 '머니러시' 현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별짓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Escaping the Concrete Jungle- 'Rustic Life' (러스틱 라이프)=러스틱 라이프란 낯설고 시골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의 여유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도시와 단절되는 삶이 아닌 도시에 살면서도 소박한 '촌'스러움을 지향하는 생활이다.

▲'Revelers in Health- 'Healthy Pleasure' (헬시 플래저)=역병의 시대 건강과 면역은 모두의 화두다. 성인병 예방을 위해 병원을 찾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나는 '얼리케어 신드롬'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Opening the X-Files on the 'X-teen' Gene-

ration(엑스틴 이즈 백)=X세대는 신세대의 원조였다. 기성세대보다 풍요로운 10대를 보낸 이 새로운 40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며 자신의 10대 자녀와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엑스틴'이라 불린다.

▲'Routinize Yourself(바른 생활 루틴이)=바른 생활을 추구하며 루틴을 지키려 노력하는 이들이 들을 일컫는다. 루틴의 자기통제 노력은 업글인간식 자기계발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힐링을 도모하고 미세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 (실재감테크)=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의 공간. 실재감테크는 가상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한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Actualizing Consumer Power- 'Like Commerce' (라이크커머스)=크리에이터들은 제품을 파는 데서 나아가 자기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자기가 판다. 이를 '라이크커머스'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Tell Me Your Narrative(내러티브 자본)=브랜드 당이나 정치 영역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내놓을 때 강력한 주목을 받는다. 2022년 두 번의 선거는 '내러티브 전쟁'이 될 것이다. 저자들은 '나만의 내러티브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미래의 창-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보트하우스=2021 목포문학상 장편 소설 부문 수상작으로 이숙중 작가의 작품이다. 미국 허드슨강 강가 별장인 보트하우스를 배경으로 여러 시기별 인물들의 내적 변화를 그려낸다. 이곳에 머물다 간 사람들은 저마다 말할 수 없었던 인지가 지조자 못했던 아픈 기억을 풀어놓는다. 섬세한 문체와 탁월한 묘사가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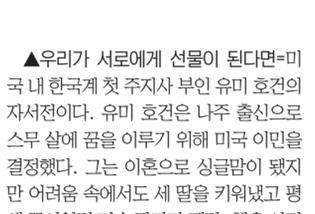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점=12년 차 사자 연구원 김현정 박사가 10년간 나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100가지의 지혜를 기록했다. 저자는 실수를 어떻게 없애는지,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일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건지,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팀원과의 불화를 조정하고 어떻게 팀의 성과를 최대치로 올리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설명한다.

《싱긋·1만4000원》

▲놀다 보면 크는 아이들=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연구가 이상호가 놀이가 사라진 시대에 놀이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놀이의 재미를 모두 열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 그 갈래마다 대표적인 아이들 놀이 68가지를 소개하며 자연에서 재미를 느끼는 자연놀이, 사라져가는 아기 놀이 등을 담았다.

《보리출판사·2만2000원》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미국 내 한국계 첫 주지사 부인 유미 호건의 자서전이다. 유미 호건은 나주 출신으로 스무 살에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이민을 결정했다. 그는 이후로 싱글맘이 됐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세 딸을 키웠고 평생 꿈이었던 미술 작가가 됐다. 책은 이민부터, 이혼, 세 딸의 싱글맘, 꿈, 재혼, 주지사 부인 등 그의 도전을 다룬다.

《봄이아트북스·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너의 우주를 들어 줄게=마고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우주 이야기를 엄마와 친구들, 선생님에게 말해주지만,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마고는 신비한 우주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어느날 마고의 입에서 우주의 비밀이 흘러나온다. 물론 이 막힌 마고를 위해 엄마가 생각했던 기발한 대화법을 통해 소통에 대해 전한다.

《불광출판사·1만2000원》

▲신발 멀리 차기=부산에서 활동중인 서형오 시인의 청소년시집이다. 현재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생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목소

리와 일상을 생동감 있는 언어로 세밀하게 담아냈다. '운동장에서', '시험 중후군' 등 재치 있는 표현과 발랄하고 상징적인 묘사로 표현된 시편들은 공감을 자아낸다.

《창비교육·8500원》

▲국경=20대 초반 2년 넘게 배낭여행자로 지낸 저자 구들이 수많은 국경을 넘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국경 이야기다. 국경은 이웃 나라들의 관계를 보여 준다. 어떤 나라는 국경을 허물고, 또 어떤 나라는 거꾸로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기도 한다. 저자는 24개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한다. 세계의 국경을 그림으로 만나면서 경계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책읽는곰·1만8000원》

위안과 영감의 원천...예술가들의 뮤즈가 된 반려동물

예술가와 네 발 달린 친구들

김정현 지음



나이가 들고,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워져 말년에 침대에서 주로 작품활동을 했던 마티스 곁에는 늘 고양이가 있었다. 비둘기도 함께 키운 그는 비둘기를 모티브로 콜라주 작품을 여러 점 제작했고, 세상을 떠날 때는 친구 피카소에게 이 비둘기를 부탁했다.

금붕어도 사랑했던 그는 밝은 옐로우 빛 금붕어와 푸른 어항이 어우러진 '고양이와 함께 있는 금붕어' 등 10점 이상의 금붕어 작품을 그렸다. 모로코를 여행할 때 주민들이 금붕어 어항을 바라보며 몇 시간씩 이른바 '금명'을 때리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그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프로방스 미술 산책', '고양이와 함께 티타임 위 세

계 정복', '미술과 건축으로 걷다, 스페인' 등의 책을 펴낸 김정현의 새 책 '예술가와 네 발 달린 친구들'은 예술가들과 그들의 뮤즈가 되어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 역시 반려견 요롱이(닥스훈트), 반려묘 감자(페르시안)와 살고 있다.

'네 발 친구' 들은 당대의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막막한 정서를 견디게 해준 작은 친구들이다. 이 책은 두 발 동물이기도, 네 발 동물이기도, 때로는 무(無)발 동물이기도 한 그들이 어떻게 예술가의 작품에 스며들어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선보이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책에 등장하는 예술가는 모두 19명이다. 액션 페인팅으로 알려진 잭슨 폴록은 본인의 작업실에서 까마귀와 두 마리의 개를 길렀다. 알콜 중독자에 괴팍하고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는 까마귀만큼은 무척 아껴 함께 셀기를 찍고 새집도 만들어 주는 등 애정을 쏟았다.

에밀리 키는 엄격한 종교적 규율이 지배하던 시대에 과짜 취급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살았고 그 때 위안을 준 게 동물이었다. 다람쥐, 너구리 등을 키웠던 그에게

특별한 존재는 자바 원숭이 'WOO'였다. 거미 원숭이와 사슴, 잉고, 양무새, 닭, 참새, 애완용 독수리 등을 키운 프리다 칼로의 집은 미니 동물원 수준이었고, 화가의 이름은 낯설지만 '베아트라 베아트릭스', '페르세포네' 등 작품은 꽤 익숙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는 이름도 생소한 '웜벳'을 반려동물로 삼았다.

책은 그밖에 어찌나 고양이를 좋아하고 많이 그렸던지 일명 '변묘'라고 불렀던 조선후기 화가 변상백, 수십마리의 고양이와 등장하는 작품 '묘사호오십삼필'로 유명한 일본 우키요에 작가 쿠니요시 우타가와, 사자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로자 보노르 등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책은 무엇보다 공들인 편집이 눈에 띈다. 저작권 계약을 맺고 처음 국내에 소개하는 도판과 사진도 만날 수 있다.

토일렛프레스 대표이자 책의 편집을 맡은 안나씨는 '예술가의 최측근'이라는 편집자의 글에서 "명민한 예술가가 그리고 쓰고 찍으면서 짚어낸 세계를 더듬는 행보에서 그들 곁의 동물 친구들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토일렛프레스·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